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월 17일(주일) 제1328호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90일의 기적’과 함께 90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사진은 지난 1월 15일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기도, 말씀, 나눔으로 수놓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피(血)로 회복 생명나눔의 기적 1월 23일부터 '90일의 기적 토요새벽기도회' 도 시작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지난 1월 4일(월)부터 시작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의 열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기도와 성경일독으로 극복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영성 함양 및 재무장하는 장(場)이다. 대한민국 피(血)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가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로 참여할 수 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은 90일 동안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거나 '90일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시청하면서 성경을 완독하는 과정이다. 소속 공동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에서 신청하면 된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신청하면 단체대화방(카카오톡)에 초대 받는다. 새벽기도회 출석 인증은 새벽기도회 전후 15분 동안(오전 5시 45분~6시, 6시 45분~7시) 단체대화방에 '십자가 아이콘'을 한 번만 올리면 된다. 성경일독은 당일 분량을 다 읽거나 '90일 공동체 성경읽기'를 시청하고 '한 줄 소감'을 단체대화방에 올리면 된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신청

한 성도에게는 아이스쿨 학점이 부여된다.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모두 완주하면 4학점, 성경일독 하나만 완주하면 2학점을 준다. 완주한 성도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준다. 새벽기도회 65회 중에서 60회, 성경일독은 4월 10일까지 완독하면 완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도 90일 동안 이어진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헌혈소를 방문해서 헌혈하고, '인증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주소, 연락처'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 또는 문자메시지(010-2004-4800)로 전송하면 된다. 성도들이 보낸 인증사진과 한 줄 소감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에 업로드 된다. 온누리신문에도 실린다.

1월 23일부터는 '90일의 기적 토요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오전 6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90일의 기적 토요새벽기도회는 대학청년부가 섬긴다.

김홍수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도리어 내가 은혜와 위로를 받고 있다"고 했고, 라상원 집사(대전 온누리교회)는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고 고백했다. 한채린 자매(대전 온누리교회)는 "성경일독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망했고, 장미진 성경일독팀장(부천 온누리교회)은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완주해서 '90일의 기적'이라는 이름처럼 모두가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 정현주, 김영선, 홍하영 기자

목회사관학교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1월 19일부터 6주간 온라인 진행

2021년 목회사관학교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를 주제로 막 오른다. 1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430명(전임 168명, 파트 262명)이 참가한다.

2021년 목회사관학교에서는 강의와 패널 토의가 이어진다.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의 미래목회', 케빈 목사 '새들백교회 온라인 캠퍼스', R.T. 켄달 목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 영성',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미래 사회변화 대처', 박세업 선교사(모로코 선교사, KOICA) '선교적 영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패널 토의에서는 이재훈, 이인호, 유기성 목사가 '코로나 시대의 목양'을 주제로 토론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1년 선교헌금작정

코로나19 긴급구호, 난민, 이주민사역 등 계획

오는 1월 30~31일과 2월 6~7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와 해외 비전교회에서 2021년 선교헌금작정을 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 클릭)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교헌금작정은 온라인 선교헌금 작성서에서 신규헌금이나 봉투헌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 개인정보, 금액, 전자서명을 입력하면 된다. 선교헌금 증액을 원하는 성도는 2000 선교본부에 문의해야 한다.

2021년 온누리 선교는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구호, 난민, 이주민사역, 재능기부 애플리케이션 온커넥트 오픈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은 지난해 60개국에서 56,606세대에 약 10억 원 상당의 식량과

위생용품(마스크 등)을 지원했다. 또한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사역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지난해 선교사들의 비대면사역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주성렬 선교사(중앙아시아 A국)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면서 "늘 중보기도해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선교를 잊지 말고,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비대면 발급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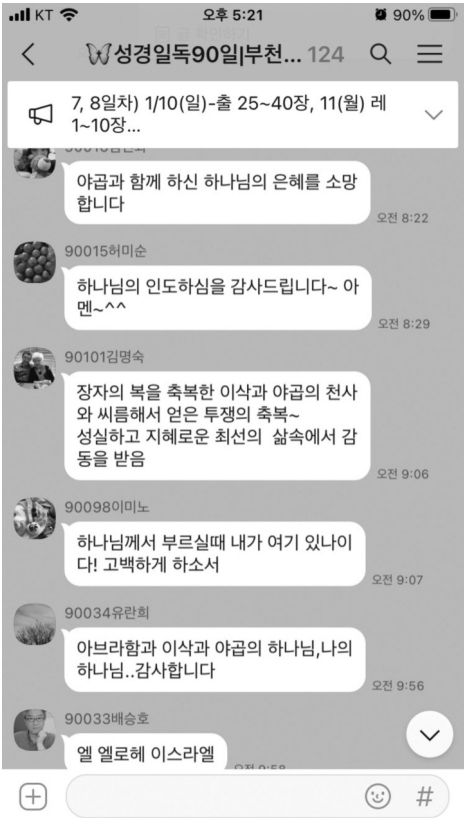
온누리교회가 2020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비대면으로 발급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메일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즉시발급'이나 '우편발송 신청'란을 클릭하면 된다. 이메일과 전화신청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문 발급은 제한된다. CGNTV와 NGO 더멋진세상, 두란노 해외선교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교회 02-3215-3265(3264, 3618, 3253)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힘!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참가자들의 고백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고 있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간증과 은혜가 벌써 풍성하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는 온누리교회 성도 1만479명(1월 10일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첫 주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 수 20만을 기록했고, 유튜브 실시간에는 매일 8천여 명이 접속하고 있다. 공동체 단체대화방에서는 새벽기도회 출석 인증을 하고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

라상원 집사(대전 온누리교회)는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맛있는 은혜를 맛보고 있다.

“부족한 제가 공동체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성도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전 온누리교회 서누리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함께 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위하는 공동체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다.

“올해 공동체 총무로 섬기게 됐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는 자리라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성도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지체들의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송호준 권사(경기A공동체)는 공동체 성도



▲ 한채린 자매(대전 Belief청년부)가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고 있다.

◀ 부천 온누리교회 믿음공동체 성도들의 ‘한 줄 소감’.

들과 함께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공동체의 힘을 경험하고 있다.

“제 또래 성도님들이 새벽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새벽기도가 익숙해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가 특별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다릅니다.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엄청난 공동체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니까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힘 아니겠습니까?”

성경일독이 선물한 은혜 그리고 간증

윤정진 성도(부천 온누리교회)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여하면서 예배에 대한 감동을 회복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날이 길어지면서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데도 혼자 읽으니까 힘이 들었고요. 그런데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은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윤정진 성도는 공동체 담당목사가 인도하는 ‘90일 공동체 성경읽기’ 온라인 모임에서도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첫날 정형권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어요. 제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무릎

꿨게 되었습니다.”

윤정진 성도가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서 받은 은혜가 얼굴빛에 바로 나타났다. 가족들이 한결같이 윤정진 성도의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했다.

“아이와 남편이 제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일독을 열심히 하면서 영상 예배에 대한 아쉬움에서 벗어나고, 제 안에서 예배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위기 속에서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길을 만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은 회복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한채린 자매(대전 Belief청년부)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저희 공동체 지체 35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혼자 성경일독을 한다면 외롭고 도중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은혜는 정말 크더라고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한 줄 소감’에도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다.

김일국 형제(대전 Belief청년부)는 “행실이 올바른 사람만 쓰이지 않고 어떤 사람도 들어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고 했고, 신지영 성도(이수공동체)는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의미를 찾고 살자”고 권면했다. 조정구 성도(고양은평공동체)는 “형제들이 준 배신과 고난을 분노와 원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용서하는 요셉의 믿음과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소망했고, 김정훈 성도(부천 온누리교회)는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는다”고 고백했다. 김효선 성도(양천공동체)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깨어있겠다”고 다짐했고, 김연주 자매(요셉청년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구했다. 정우진 성도(일산공동체)는 “나의 부정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간증했다.

/ 정현주, 김연선 기자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한 줄 소감’ (1월 4일~16일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창조된 저도 좋다고 하시겠지요?

/ 김미진 성도(고양은평공동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 것처럼 다시 기도의 불을 밝히려 합니다.

/ 이향숙 성도(고양은평공동체)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자 급히 뛰어들면서 좋은 것으로 풍성히 대접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상태를 배려하면서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함을 깨닫습니다.

/ 유지현 간사(비서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과정이 인상 깊었고 나 또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권령하 자매(대전 Belief청년부)

·순종함이 가족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쿠마가이 카오루 자매(러브소나타 간사)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 문보혜 성도(이수공동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 김정훈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나 항상 속죄의 길과 방법을 세심하게 마련해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 임희용 자매(요셉청년부)

·모든 제사의 시작이 ‘준비’부터임을 발견하며, 하루 전체를 예배로 생각할 때 일어나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 박서영 자매(요셉청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대속의 길을 상세히 알려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 김건백 성도(강남D공동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제사가 까다롭지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느끼며 나의 영혼이 자치자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이재영 성도(강남D공동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까지 세심하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강병조 성도(일산공동체)

·목이 곧은 백성들의 반역과 불충한 행동까지 모두 용서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 황영규 집사(여의도공동체)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생명 나누는 기쁨, 생명 살리는 기적

헌혈전도사 정영철 순장, 헌혈은 곧 선교 이진선 성도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이 시작됐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이 주축이다. 특히 생명나눔의 기적은 성도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칭찬이 자자하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1월 4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이진선 성도(서빙고 유년1부)가 꾸준히 헌혈하며 모아둔 헌혈증.

◀ 정영철 순장(양천공동체)이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헌혈을 하고 있다.

“이웃을 위한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 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의 요청이다. 우리나라 혈액보유량이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기준으로 혈액보유량이 적정량의 60%를 밑돌고 있다. 28일이면 소진되는 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해 헌혈의 집 방문과 단체헌혈 취소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정 혈액보유량을 5일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5천6백 명 이상의 헌혈이 필요하다. 그런데 코로나19와 한파까지 겹치면서 하루 평균 헌혈자가 크게 줄었다. 4천 명 대 수준을 맴돌고 있다. 하루 평균 1천 명 이상의 헌혈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교회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매일 2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헌혈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헌혈하고 소감을 나누는 SNS 계정에는 “헌혈을 통해 작은 섬김과 헌신을 한 것 같아 기쁘다”, “생명을 나누는 기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다”, “피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주심에 감사하다” 등의 고백이 줄을 잇고 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참가자들이 있다. 정영철 순장(양천공동체)과 이진선 성도(서빙고 유년1부)가 그 주인공이다.

정영철 순장은 나이가 칠순이 넘었다. 그러나 헌혈에 대한 열정만큼은 청년 못지않다. 정

영철 순장의 헌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공동체에 이미 소문이 났다. ‘헌혈전도사’라는 별명이 생기기까지 했다.

“헌혈하고 나서 종종 공동체 단체대화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헌혈하면서 얻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헌혈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영철 순장이 헌혈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예수의 피(血)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영철 순장은 2000년부터 자영업을 했는데 큰 빛에 시달렸다. 6년 동안 집에 생활비 한 번 가져다주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가족의 권유로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때마침 40일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이었다. 정영철 순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했다.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새벽기도회를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서 보험금을 가족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갑작한 마음으로 참석했던 새벽기도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기적처럼 정영철 순장을 둘러싸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됐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제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씩 회복되고 빛도 갠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얻은 회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이제껏 해오던 헌혈에 더 열심을 냈다. 2년 전에는 헌혈 50회를 달성하고 적십자 헌혈유공장(금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50회 헌혈을 끝으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 시작됐다. 정영철 순장은 그 길로 헌혈의 집을 찾았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혈액보유량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교회에서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 제 피가 쓸모가 있을지 걱정이 됐지만 적극 동참했습니다. 헌혈의 집 간호사님이 혈액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웃음). 건강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헌혈할 것입니다.”

이진선 성도는 115번째 헌혈을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서 했다. 이진선 성도는 몇 해 전부터 한 달에 두 번씩 혈장헌혈을 이어오고 있다. 꾸준히 헌혈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에 사로잡혀 한결 같이 하고 있다.

“헌혈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비하면 제가 하는 헌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가 죄 사람을 얻고 회복된 것처럼 제 피가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피를 나누는 작은 섬김으로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진선 성도에게 헌혈은 의미가 남다르다.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이진선 성도에게는 헌혈이 곧 선교이기 때문이다. 헌혈을 생명을 구하는 또 하나의 사역이라고 여기고 있다. 아버지의 소천, 코로나19로 막힌 선교의 꿈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헌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해는 제게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선교의 꿈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꾸준히 해오던 해외 봉사나 이웃리치 같은 사역도 할 수 없게 되면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문득 헌혈이 선교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을 나누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헌혈에 임할 것입니다.”

이진선 성도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아직 헌혈을 망설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동참하기를 권유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기쁨,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모아둔 헌혈증을 필요한 성도님들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헌혈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헌혈, 이것이 궁금합니다

“헌혈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모를 감염위험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여행 이후 1개월 동안 헌혈 금지, 강화된 문진(모든 헌혈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헌혈 장소 및 헌혈자의 철저한 위생 관리, 채혈된 혈액에 대한 안전 조치(확진자의 혈액이 출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확진자 명단 제공) 등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료출처: 대한적십자사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죽음의 냄새인가 생명의 향기인가

고린도후서 2:12~17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포로된 종으로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없다면 햇하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의 추운 겨울은 고통스럽지만 통과해야만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추운 겨울을 통과함으로 맺히는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18세기 찬송작가이자 시인 윌리엄 쿠퍼가 찬송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부터 겪었던 병마 때문입니다. 그는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20대부터 깊은 우울증과 정신쇠약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과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가 깊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동시대 인물 이었던 목회자 존 뉴턴도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쿠퍼의 아픔을 공감하고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15년 동안 목회자, 상담자, 친구, 동역자로서 함께 주옥같은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을 통한 열매에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잘것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미디안의 10만 군대를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목동 다윗을 통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열매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항상 고난이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바울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고난을 감당할 때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고통을 담고 있는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

난 그의 고백들은 매우 정직하고 진솔합니다. 각 장마다 그의 근심과 고통이 조각조각 나타납니다. 모든 마음의 고통을 끌어모아 쓴 책이 <고린도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때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역설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역설을 경험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패배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교회에 대한 근심, 염려, 충격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12~13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디모데를 통해 보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가 매우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바다를 건너 직선거리로 가면 최단거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그때의 방문을 ‘매우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했을 정도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대적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고, 믿게 하였고, 양육하였고, 권면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일부 사람들의 선동과 거짓된 주장에 넘어가서 바울을 불신임하고, 대적하고, 사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돌아와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나는 큰 환란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고후 2:4).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곧바로 고린도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가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

역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고린도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 주신 사역의 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드로아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바울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환란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디도가 마케도니아로 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바울의 모든 여정에는 고린도교회에 대한 근심과 염려, 충격 속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시 역전을 경험합니다.

개선장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을 따라가면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14절).

‘승리하게 하신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문에는 ‘승리한다’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고, ‘인도함을 받고 따라간다’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단어를 개선장군을 따라 함께 행진하는 일원으로 참가할 때 쓰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다’고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로마 전체 시민들 앞에서 개선행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당시 로마의 개선 행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승리한 장군의 개선행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로마의 거리를 지나 주피터 신전 있던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향했다. 맨 앞에서는 주행정관과 원로원이 섰다. 그다음에는 나팔수들이 섰고, 그 뒤로는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든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다음에는 사로잡힌 군주들, 지도자들, 장군들이 사슬에 묶여 걸어갔다. 그 뒤에는 행정관들, 곤봉을 든 관리들이 있었고, 수금을 든 악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이 타고 있는 향로를 흔들면서 갔

다. 그다음에 사두마차 위에 서 있는 개선장군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가족이 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온갖 장식을 한 군대가 ‘이오 트리움페(Lo triumphe)’라는 승리의 구호를 외치며 따라갔다.”

개선장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사령관이십니다. C.S. 루이스도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묘사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장관이 성자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임재하신 모습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학자들은 바울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종의 일원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령관으로 오셔서 사단의 종으로 묶여 살아가던 자신을 구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일원이 되어 포로된 종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는 승리는 잘못된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포로된 종으로, 때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연약한 자로,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자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전리품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행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분은 곧 승리하신 개선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그 승리의 행진을 따라가면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존재

승리의 개선 행진에 중요한 흔적이 있습니다. 개선 행진을 따라 향을 태우는 것입니다. 개선장군의 행렬 직전에 계속 향을 피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향 냄새를 후각적으로 기억하게 해서 승리를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만나면 승리가 기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부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4편에 계속>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지난 한 세기 동안 진화론자들이 과학과 교육계를 장악하고 진화의 패러다임을 모든 교육기관을 동원해서 가르치고 있다. 때문에 학교의 교육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화론의 진위를 밝히는 수고를 하지 않는 한 진화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창조와 진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몇몇 기독교인들이 중간지대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유신진화론'이라고 부른다. 요약하면 첫 생명체가 만들어질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후 모든 과정은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중간지대를 찾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류 과학계의 강력한 진화 패러다임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타협하는 것이고, 진화론에 의해 점점 내몰리고 있는 기독교를 과학과 화해시키려는 목적이 있겠다.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이다. 그는 유전학자이며 의사로서 남포성 섬유증을 비롯한 여러 유전질환의 원인유전자와 그 돌연변이의 정확한 부위를 밝혀내었다. 또 미국 국립보건

원의 수장으로서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이끌어 2002년 인간 유전체 첫 편집본을 발표하였다. 2006년에는 인간 유전체의 유전정보를 밝혀가는 과정을 기독교인으로 간증한 <신의 언어(The language of God)>를 출판하였다. 이 업적들로 유명해지면서 기독교와 과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2009년 'BioLogos' 재단을 설립하였다. 자신이 밝혀낸 인간 유전체 속에 내재된 정보의 의미를 자신의 재단 이름과 책 제목에 담아 기독교와 과학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중간지대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신진화론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견해가 있다. 성경학자 웨인 그루텐은 바이오로그스 재단이 주장하는 유신진화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주는 140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대폭발에 의해 탄생했다. 우주의 모든 속성들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잘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에 있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생겨난 단세포 생명체는 진화와 자연선택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지게 되었다. 진화가 시작되고 난 후에는 어떤 초자연적 간섭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도 이런 과정의 일부분이며 대형 유인원들과 조상을 공유한다. 인간의 독특성은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것

은 선악을 구별해 주는 존재인 하나님을 발견한 인간의 문화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유신진화론은 결국 진화론이며 창세기의 하나님 역할이 수정되었다. 오스 기니스는 유신진화론을 수용함으로써 교회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통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견해나 행동 양식을 수용하지만, 그것들이 기독교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J. P. 모어랜드는 유신진화론이 이 시대 교회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진화론을 거부하라 강요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독교 지식의 원천을 제거하고, 기독교를 이성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릴 것이라 주장했다. 받아들이는 첫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신진화론은 진화과정에서 첫 사람 아담을 특정할 수 없게 만들고, 원죄의 책임 소재나 존재여부도 불분명하게 한다. 원죄의 교리가 희미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역시 그 필요성을 잃어버린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신진화론을 취하는 순간 과학주의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신학과 성경의 가르침은 과학의 검열을 받아야 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또 이후 과학으로부터 압력이 올 때마다 그 해석을 쉽게 수정하게 만들 수 있다. 쉽게 수정될

수 있는 성경의 해석을 누가 굳게 믿을 수 있겠는가?

데이비드 노에벨은 이렇게 탄식했다.

“진화론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창조론에 대해서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진화론은 명백한 과학이 아니고 그럴법한 가설에 대한 형이상학적 믿음이다. 이 믿음의 세계관을 통해 재생산된 지식들이 과학적 발견으로 둔갑하여 진화론의 패러다임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 진화론적 환경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전에 배우고 익혔던 자신의 전공지식과 세상의 이념은 이전 세계관의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영적전쟁인 것이다(고후 10:4-5).

묵상: 유신진화론을 선택한 기독교인은 원죄를 인정하는가?

크리스천을 위한 성상담

결정과 결과는 자신의 몫, 선택은 서로의 몫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스킨십이나 성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했고, 유혹이 올 때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며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지금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한다면 이 사람이 저를 떠나지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으려니 남자친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충분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 서로 성숙한 교제를 하고 있고 상대를 깊이 사랑하기에 고민을 하는 자매가 참 귀하게 여겨진다. 이런 고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조언한다. 고백해서 서로의 관계에 좋을 것이 없으니 조용히 묻고 가라는 의미에서 하는 진심 어린 조언이다.

과거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

를 털어놓고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관계의 깨짐이 두려워 말하지 않는다면 상대를 속이는 것 같아 미안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된다. 이런 경우라면 과거를 고백했을 때와 고백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보고 결과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결정은 자신의 몫이고, 이후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사연을 보낸 자매에게서 상대가 떠날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운 감정이 보인다. 먼저 두려움과 불안해하는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자.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두려움에 대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중하게 선택하기를 바란다.

상대에게 사실대로 말했을 때 상대가 떠난다면 감당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라. 사실을 듣고도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있는지도 생각해보라. 만약 사실대로 고백한다면 너무 세세한 것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누구인지, 스타일, 만

남 장소, 분위기, 기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담백하게 말해도 그 사실을 들은 남자친구는 과거의 이성을 상상하며 마음속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괴로워하는 모습은 상상 이상이다. 만약 말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만났던 이성이 있었고, 지금 내 삶에는 중요하지 않아” 수준의 고백이면 되지 않을까? 내 마음 편하자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 떠날 수도 있다. 과거에 대해 말을 했다면 떠날지, 계속 함께 갈지의 결과는 상대방에게 맡겨야 한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해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말하라. 물론 상대의 과거를 알고도 결혼한 커플들이 있다.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신뢰와 사랑으로 과정을 지나간 것이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과거의 연애가 현재 자신의 육체적, 정서적, 재정적, 관계적인 면에서 매우 심각한 흔적을 남기고, 여전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전문 상

담을 받으면 좋겠다. 과거의 성적인 경험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경험해가자.

과거의 연애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지 않는다고 연인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의 관계를 위해 하지 않을 뿐이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관계를 잘 이어오고 있고 신뢰와 사랑이 있는 관계이기에 이 관계를 지금처럼 잘 유지해가도 된다. 선택은 본인 이 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 결정하라. 고민하고 있는 자매를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누리길 바란다.

*** 성문제 관련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의 사례를 모집합니다(hha0@onnuri.org).**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 예비학
교 부부강사)

그 보석 같은 청년들을 만났다

그들이 무대에서 오직 찬양만 하는 이유

가스펠 보컬밴드 'CRUX'의 신앙과 다짐

얼어붙은 고용시장,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코로나19까지...

이 시대 청년들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살기가 얼마나 팍팍했으면 주위 청년들이 하나같이 "요즘 사람 구실 하기 너무 힘들다"면서 우는 소리를 참 많이 한다. 크리스천들은 살기가 더욱 힘들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모범까지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는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서 완수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다. 삶과 신앙, 일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데 말이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보석보다 귀하다. 그 보석 같은 청년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만났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가스펠 보컬밴드 'CRUX'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치유받고 힘을 얻고 있는 청년들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18년 혜성같이 등장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잔잔한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는 찬양 사역팀이 있다. 주인공은 5인조 남성찬양사역팀 'CRUX'다. 라틴어로 '십자가'라는 뜻인 CRUX는 무대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일념으로 태동했다. 전병곤 성가사(온누리교회)를 필두로 오동규 성도(온누리교회), 김정국 성도(온누리교회), 이수철 성도(새문안교회), 윤승욱 집사(안산꿈의교회)가 섬기고 있다.

많고 많은 남성찬양사역팀 중에서 CRUX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무대에서 오직 찬양만 하기 때문이다.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싶었지만, 전병곤 성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국내에 남성찬양사역팀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백 팀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대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남성찬양사역팀은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저희 CRUX는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자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CRUX는 무대에서 찬양만 하는 남성찬양사역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권면으로 시작했다. CRUX라는 이름도 이재훈 담임목사가 지어줬다.

“2016년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저와 오동규 형제에게 ‘찬양만 하는 남성 찬양사역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후배인 수철 형제에게 제안했습니다. 추천으로 정국 형제가 합류했고, 지난해 승욱 형님이 함께하면서 5인조 남성 찬양사역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찬양은 생명의 샘, 선교, 약속

CRUX 팀원들은 대학교수, 회사원, 카페 운영, 뮤지컬 배우, 성악가 등 각자 본업이 따로 있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매주 시간을 내서 연습하고 무대에 오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원동력이 궁금했다. CRUX 팀원들 각자가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이다.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CRUX 팀원들에게 찬양은 생명의 샘, 선교, 약속이라고 소개했다. 전병곤 성가사에게 찬



가스펠 보컬밴드 'CRUX' 팀원들(왼쪽부터 전병곤 성가사(온누리교회), 오동규 성도(온누리교회), 김정국 성도(온누리교회), 이수철 성도(새문안교회), 윤승욱 집사(안산꿈의교회)).

양은 생명의 샘이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광고 음악, 가요,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무대에서 순간의 기쁨을 많이 맛봤지만, 무대가 끝나고 나면 깊은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CRUX 활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깊은 갈증이 온전히 해결되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CRUX 팀원들은 각자 일을 마치고 밤 9시에 모여 찬양연습을 합니다. 그 늦은 시간에 모여서 연습하려면 몹시 피곤할 법도 한데 기쁨이 가득합니다. 늦은 시간에 찬양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기쁨과 생명력이 차고 넘칩니다. 바로 그 기쁨과 생명력이 저희가 찬양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CRUX 팀원 오동규 성도에게 찬양은 선교이다.

“제가 성악가이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특순과 성가대, 찬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이 꽤 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CRUX 활동 초기에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찬양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마음과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CRUX 팀원 김정국 성도에게 찬양은 약속이다.

“어렸을 때 음악을 배우고 싶어서 가출 아닌 가출을 했습니다. 메탈락팀에서 신디사이저를 배우고 나중에 꼭 교회 음악을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가정이 생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온누리교회에서 베이스기타를 연주하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CRUX 팀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CRUX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찬양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크게 힘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

CRUX 팀원들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철 형제와 뮤지컬 배우 윤승욱 성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수철 형제는 파산에 가까운 위기에 처했지만 그 힘든 시간을 찬양으로 견디고 새 힘을 얻고 있다.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저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져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찬양과 기도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힘들 때에도 CRUX 활동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CRUX와 함께 다시 찬양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윤승욱 집사도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찬양으로 새 힘을 얻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뮤지컬 무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웃이나 가족들과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CRUX 연습에 참여하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찬양하면서 제 나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와 찬양이 주는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CRUX의 활동이 전무했다. 심혈을 기울인 정규앨범 계획도 무산됐다.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 내일을 계획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UX의 새해 계획이 명확하다. 더 열심히,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전병곤 성가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CRUX를 비롯한 찬양사역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코로나19로 CRUX뿐만 아니라 수많은 찬양사역자들이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찬양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CRUX도 성도님들이 찬양을 통해 힘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 온누리신문에서 삶과 신앙, 일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보석 같은 청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소개해주시면 한걸음에 달려가겠습니다.
문의: k4458@onnuri.org

전문가 기고

“Never again, never again!”

스토리텔링 신앙교육과 역사교육의 중요성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랑공동체,
기업CEO,
칼럼니스트)

미국에 있는 큰 아들이 교회 선배 부부의 ‘베이비 샤워’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나 갓 태어난 신생아를 축하하는 행사) 사진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넓은 테이블과 벤치가 있는 야외 공원에서 예쁜 케

이크와 작은 현수막으로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출산을 앞둔 임신부와 곧 태어날 아기에게 줄 친구들의 선물과 파티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미국에서는 이같이 출산을 앞둔 커플을 위해 친구, 선배들이 선물과 함께 권면과 기도, 축복, 다과의 시간을 갖는 베이비 샤워라는 풍습이 있다. 또 하나의 미풍양속에 ‘웨딩 샤워’라는 것도 있다. 결혼 날짜가 잡힌 커플을 초대해서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부모들이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나누기

내가 다니던 방송사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웨딩 샤워와 두 차례의 베이비 샤워 수혜를 입었다. 노처녀와 노총각이 만났는데 일을 하느라 남들보다 10년, 20년 늦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창사 이래 최고령 임신부라며 많은 관심과 축하를 받았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이런 아련한 추억들에 대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베이비 샤워 사진을 보니 지난 기억들이 소환되기 시작했다.

1992년 구소련이 붕괴되고 첫 개방을 했을 때 그곳에 복음방송을 건립하기 위해 기독교실업인 50여 명을 모시고 유적지 관광을 겸해 러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닌 적이 있다. 당시 임신 초기였던 나는 하루 두 시간씩 자며 강행군을 한 탓에 귀국하자마자 하혈을 했다. 유산의 위기 앞에 의사는 아기집이 처져 장애아가 태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충격과 깊은 고민에 빠진 내게 그 의사는 생명은 고귀한 것이기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우리 부부는 출산하는 날까지 새벽기도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아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출산 후가 동안 당시 창간한 <Sena>(중고등학생 큐티집 새벽나라) 번역을 하면서 태어날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구했다. 다행히 아이는 우람아로 건강하게 잘 자랐다. 유학도 가고 대한민국 육군으로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될 때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

부모가 체험한 하나님 은혜, 간증, 역사를
밥상머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누는
스토리텔링 습관을 가져야 한다.

”

청년이 되었다.

치열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마흔둘에 얻은 둘째 아이도 노산이었지만 건강하게 출산해서 잘 성장했다. 나는 처음으로 가족 단체채팅방에 아이들이 배 속에 있을 때 함께 축복을 받았던 베이비 샤워부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들려주었다. 이러한 숏한 간증들을 의지적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자녀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부모 마음을 물려주는 자녀들에 대해 많은 부모들이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며 교육과 훈계의 채찍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요즘 교회에서 낙태, 자살 등 생명 존중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다. 말로 백마디 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치열한 삶 속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내했는지 계속 들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우리 자녀들이 겪는 인생의 단계들은 부모들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시간에 경험한 일들이 많다. 단순히 옛날이야기를 추억처럼 되풀이하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모가 그 인생의 고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밥상머리에서, 가정예배에서, 단

체채팅방에서라도 자주 나누면 그것이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되고 신앙의 유산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성경교육과 역사교육

유대인과 한국인은 공통점이 많다. 역사적 시련기를 오래도록 거쳐 왔고 전 세계에 흩어져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적 근성과 부지런함, 천재성도 그렇다.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는 유대인과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새벽기도, 철야기도회 등에 나가며 열심을 내는 한국 크리스천들은 공통점이 있다.

한반도가 외세의 침입을 당한 횡수는 1천 번이 넘는다고 한다.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민초들이 말 못 할 고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6.25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축복받은 민족이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대인이 5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 기업이고 미국 월스트리트도 유대인들이 장악했다.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 교육방식으로 유명한 그들이 우리 국민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역사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유대인들이 당한 역사적 시련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AD 70년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로마의 유다 통치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 온 엘리아자르 벤 아이르는 960명을 이끌고 천연 요새인 마사다 언덕으로 피난갔다. 마사다는 곡물 창고와 저수지가 있어서 식량과 물 공급이 안정적인 탓에 로마군의 포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저항하며 몇 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로마군의 진입이 거의 가까워졌을 때 마사다 요새에서는 비장한 결단을 내린다. 남자들은 학살당하고 어린이와 부녀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일이 명약관화였기 때문이다. AD 73년 4월 15일, 민족 지도자 엘리아자르는 명예롭게 자살하는 편을 택했고 부하들과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서로를 죽이는 자살조를 편성한다. 제비로 열 명의 시카리 전사를 뽑아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최후에는 서로를 찌르는 임무를 맡았다. 가장은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살했다. 그들이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지 후세에 전할 증인으로 한 사람만 살려두었다. 다음 날 성벽을 돌파하고 들어간 로마군이 경악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조국에 전쟁이 나면 배운 사람들부터 조국으로 달려와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간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식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교육이자 신앙교육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해 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여지도 군대에 간다. 우리나라 논산훈련소 같은 곳에서 훈련을 마치고 반드시 마지막 코스로 마사다 언덕을 올라가 이렇게 외친다.

“Never again, never again!”

다시는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겼던 수치고 고통을 다음세대에서는 겪지 않도록 지켜내는 각오의 외침이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는 6.25 한국전쟁이 먼저인지, 일제강점기가 먼저인지 헷갈리거나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이돌 그룹 신상은 졸졸 외우면서도 증조할아버지 이름을 아는 아이가 거의 없다. 교회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라는 제약을 받고 있지만, 다음세대에게 신앙교육과 역사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자녀의 입시와 성공만을 부추기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넘을 수 없는 관계가 될 정도로 커버렸다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밥상머리에서조차 가족이 각자 스마트폰으로 SNS 하느라 서로 쳐다보지 않는 한심한 풍경에서 벗어나 부모가 삶에서 체험해 온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부모가 아는 한국의 현대사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스토리텔링의 습관을 가져보자. 그래야 민족의 미래가 있다.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이샤아 과정

지난해는 나에게 정말 특별한 해였다. 대학교수로 지내면서 10년 만에 가지게 된 연구년이었다. 연구년을 한국에서 보내려다가 계획이 바뀌어 해외로 나오게 되었다. 건국대학교에서 경영하는 'Pacific State University' 교수로 오게 되었다. 딸아이가 6월 말쯤 들어와 함께 지내기로 했는데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 때문에 갑작스레 3월 초 입국하게 되었다. 함께 들어오기로 했던 아내는 상황이 안 되어 아들과 함께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세워두었던 계획들이 모두 틀어지고 캘리포니아 락다운(Lockdown), 자가격리, 근육과열, 8개월의 집거생활 등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

딸과 내가 지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락다운이 일찍 시작되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어야 했다. 딸과 레시피를 찾아보면서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고 음식 만드는 것을 배웠다. 새로운 음식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감동스러웠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식사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다.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이애실 사모님의 '어, 성경이 읽어지네' 강의를 하나씩 들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도 머릿속에 성경의 구조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딸과 나는



민덕기 집사(강동 온누리교회)가 온라인 OBC 이샤아 강의를 듣고 있다.

매일 식사를 하면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채웠다. 6월 중순이 지나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예배인 온누리교회에서 성경필사를 진행했다. 나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딸은 에베소서서를 신청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들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9월 초 아내가 온누리교회 아이스쿨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온라인 강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고, 몇 개 이상 들으면 안 된다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최대한 많이 신청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강의가 바로 노치형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온라인 OBC 이샤아 과정이었다. 이샤아서 말씀의 핵심 내용을 전해주시기로 유명했기에 기대함으로 시작했다.

이샤아서는 성경 66권이 확정되기 전에 쓰인 책인데, 성경 구조와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샤아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샤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샤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앞드리고, 성령 가운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번 OBC 강의는 그 어떤 강의보다 특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강의가 시작되었고 그 덕분에 멀리 미국에 나와 있는 나도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목마른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꼭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한 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코로나19가 지난 이후에도 온라인 강의를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바쁜 직장인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도 풍성한 영적 공급을 받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 민덕기 집사(강동 온누리교회)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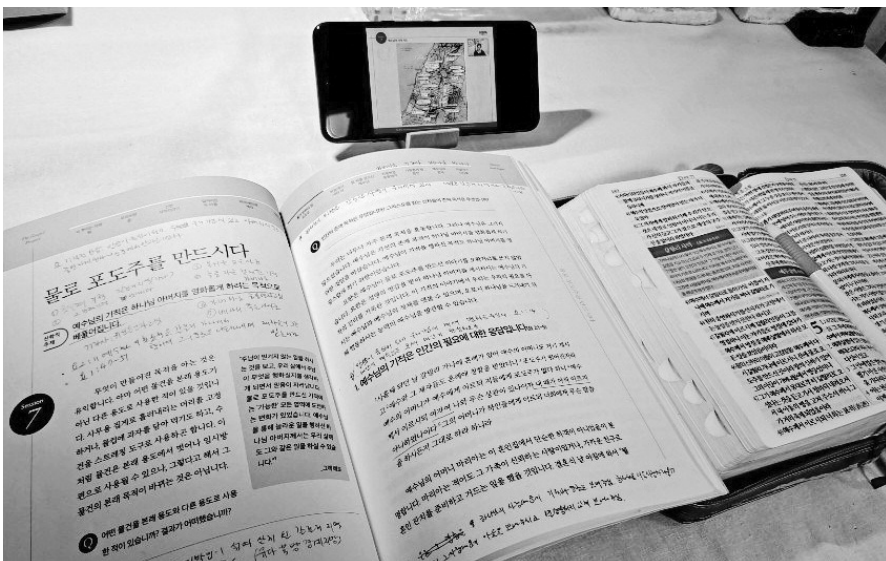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코로나19로 인해 OBC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듣게 된 강의도 새롭고 은혜로웠지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이 따로 있었다. 신원석 목사님께서 강의해주신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2: 비유와 기적 강의(이하 가스펠 프로젝트)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했다.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내 믿음의 척도를 깨달았다. 한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떠올라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느끼고, 다시 첫사랑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

에 반응하며 매주 강의를 들었다. 나는 3년 동안 암투병을 하면서 거듭되는 치료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다. 이런 나에게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내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마 14:27).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두려워하는 내게 주님은 물위를 걸으며 다가오셨다. 혼자



이용옥 권사(동대문중앙공동체)의 온라인 OBC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 노트.

주는 주님이심을 깊은 신뢰로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죽음 이후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 그 미래를 뚫고 나와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다. 예수님 없이는 단 한 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더욱 낮은 자세로 나아간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다.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내게 닥쳐온 고통과 환난이 너무 작은 문제가 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나의 고통을 바라보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 예

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므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명을 찾게 된다. 나와 같이 아픈 자를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내게 주신 고난과 아픔이 나와 같이 아픈 자들을 위로 하라고 허락하신 사명의 도구임을 깨달았다.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일가친척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나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을 기대한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중보하는 기도자로 살아가고 싶다. 내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살아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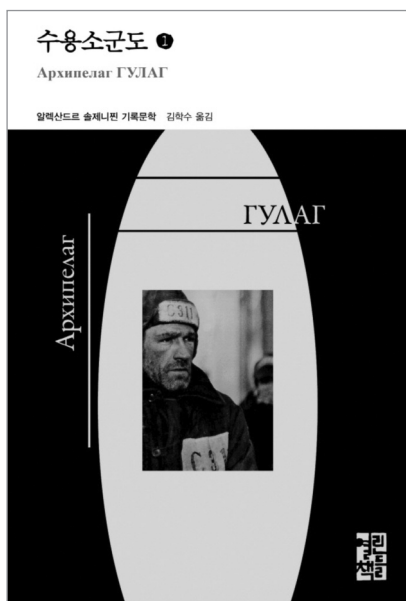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사명을 깨닫게 했다. 또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안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했다. 너무 귀한 강의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랑과 열정을 다해 강의해주신 신원석 목사님께도 감사

를 드린다. / 이용옥 권사(동대문중앙공동체)



책 읽어주는 목사

진실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수용소군도〉
알렉산더 솔제니친 저 | 열린책들
| 13,800원

이 책의 저자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구소련의 작가이자 역사가다.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의 생각만 가지고 글을 써내는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삶을 토대로

세상과 인간과 국가의 진실들을 기록했다. 그는 책의 서두에 이렇게 썼다.

“이미 세상을 떠나 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는 이 한 문장 안에 자신이 쓰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담아냈다. 그 기록의 결과물이 책으로 출판되어 나오면서, 수많은 선전과 이데올로기 뒤에 숨겨졌던 실상과 진실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진실을 기록해서 알리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느꼈다. 첫째, ‘울림’이다. 이 책에는 수많은 죄수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을 결코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체포되어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대신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다룬다.

“한 가족의 아버지였던 남자를 기관원들이 야밤에 체포해서 수용소에 잡아들였다. 수용소의 문이 뒤에서 닫힐 때 그의 인생의 문도 닫혔고, 그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이것 뿐이었다. ‘나를? 무엇때문에?’”

이렇게 솔제니친의 언어는 추상적이지 않

고 구체적이며, 겉돌지 않고 파고들며, 치장하지 않고 치열하며, 무디지 않고 예리하다. 그래서 깊게 공감되는 언어이며, 읽는 이로 하여금 울림을 준다.

둘째, ‘몰입’이다. 〈수용소군도〉는 읽는 이로 하여금 계속 읽고 싶게 만든다. 어떤 이야기의 후속편을 계속 보고 싶어 하듯이 어떤 죄수의 이야기를 계속 알고 싶게 만든다. ‘읽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다’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왜일까? 내가 겪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내가 처한 현실과 괴리감이 없다.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을 하나씩 풀어준다.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마치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다. 나는 몰입감에 사로잡혀서 이 책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읽었다.

셋째, ‘안목’이다. 이 책에서는 수많은 실상을 드러낸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밝혀준다. 실로 충격적인 진실들이 많이 담겨 있다. 이것은 화려한 무대 뒤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멋지게 색칠된 담장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세계에서 눈을 돌리

게 하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세계를 열어젖히고 보여준다.

나는 〈수용소군도〉의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었다. 인간의 실존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거짓의 실상을 두 눈 뜨고 보게 되었으며,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안목을 조금이나마 얻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을 담고 있다. 울림이 있는 것이 진실이며, 몰입되는 것이 진실이며, 눈을 열어주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진실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진실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의 정독을 간곡하게 권하는 바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약 1:16).



한화수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동방기독교 역사

중앙아시아의 동방기독교 흔적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년의 교회역사〉의 저자 최하영 선교사는 동방기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도자적, 선교적인 신앙생활을 지향한 네스토리우스 추종자(동방기독교 신자)들은 결국 원시 시리아 동방교회와 동참하면서 가장 선교적인 모습을 이루었다. 이들은 교리보다는 다양한 선교방법을 동원해서 중앙아시아의 일부 유목민들에게 문자를 만들어 주었고 관개수로를 통한 농경술을 전수하였으며 옛 실크로드를 통한 대상속소까지 건설하였다. 이들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동방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를 떠났기 때문에 교리적인 다름이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주해 가는 곳

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부근에서 6~8세기 화폐가 발견되었는데 그 뒷면에 끝부분이 넓어지는 동방기독교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산왕조의 문양의 진주들이 두르고 있는 모양이 양각되어 있다. 화폐는 군주만이 주조할 수 있기에 중앙아시아의 한 군주가 개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다.

실크로드의 중심인 사마르칸트에서 자랍선강을 거슬러 동남쪽으로 60km 정도 가면 ‘판지켄트(지금 타지키스탄 서쪽)’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1973년 이곳에서 시리아 문자로 성경 구절이 적힌 토기 파편이 발견되었다. 내용은 [복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되는 시편 1편이었다. 6~7세기 유물로 추정된다.

우랄산맥 부근 ‘말라야 아니코

바’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7~8세기 은제 접시에는 여호수아가 예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당시 동서교역을 거의 독점했던 소그드인(국제상인)들이 북옥전파에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서쪽으로 비잔틴, 동쪽으로 중국, 북쪽으로는 몽골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동방기독교 역시 개종한 소그드인들에 의해 동방으로 전파되었고, 7세기 초반 당나라 수도 장안까지 방문해서 동방기독교 문물과 복음을 전했다.

키르기스스탄 으스쿨 호수 부근에서 610개의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동방기독교 특유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지금의 중국 위구르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도 있다.

1905년 독일인 르콕의 탐험대가 중앙아시아 최북방 투르판 인

근에서 500종의 기독교문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구약, 예배, 설교, 잠언, 하루 일곱 차례의 예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방기독교 승려들이 생활했던 것으로 짐작한다.

르콕의 탐험대는 투르판 인근에서 흥미 있는 벽화 2점도 발견했다. 둘 다 9세기 것으로 보이는 벽화인데 교회를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벽화에는 곱슬머리의 한 사제가 성의를 입고 한 손에는 향로를 들고 설교하고 있는데 세명의 신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려주일을 표현한 것이다. 또 다른 그림에는 머리를 몇 다발 꼬아 내려뜨린 여신도의 모습이 묘사되었다.

/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비 내리는 강’

비 내리는 강을 타고
우리의 날은 흘러가고
빗발치는 다리 위에서
영원한 사랑을 만나지

안 보이는 줄과 구슬로
하늘이 땅을 늘 붙들더니
태초의 사랑을 일깨우려
물세레로 강산을 덮지

가는 실로 겨우 이어진
가냘픈 기쁨이 아니라
풍성한 환희를 간구했으리
끝없는 승리를 기원했으리

놀라운 내일의 모습을 그리며
우리의 강은 굽이쳐 흘러가지
마지막 원수를 이기게 될 날에
눈부실 약속의 땅에 들게 되리



오예강 어린이(서빙고 초등부)가 엄마와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 개강

1월 24일과 31일 온라인 실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다. 그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낼 좋은 방법이 있다.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이다. 오는 1월 24일과 31일 온라인으로 자녀를 위한 일대일 양육자반이 열린다.

이기훈 목사(일대일사역팀)와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가 우리 자녀 이해하기, 자녀와의 대화법, 아버지 양육자의 성경적 원리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수강하면 좋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1천 원. 문의: 02-3215-3220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어린이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엄마랑 단둘이”

엄마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해서 좋았습니다. 언니는 아빠와 함께 일대일제자양육을 했습니다. 엄마와 둘이서 찬양을 할 때 재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십니다.

엄마가 기도를 해주실 때 좋았고, 매일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갈 때도 기도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엄마랑 다음에 또 둘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둘이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 오예강 어린이(서빙고 초등부)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반 6명 수료

10월 13일부터 1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지난해 10월 13일 시작된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반이 1월 12일 끝났다. 총 6명이 수료했다.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반은 지난해 2월 개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었다가 지난 10월 13일 온라인(Zoom)으로 과정을 시작했다.

이상은 성도(김포공동체)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면서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

반이 일본 교회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상 성도(일본어예배부)는 “앞으로 일본어 일대일 제자양육과 미용기술을 더욱 같고 닦아 일본 선교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 02-3215-3702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세계사와 세상을 보는 지혜를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세미나가 2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8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그리스도 역사와 시대들의 구분’, ‘헬리와 로마와 유대’ 등을 주제로 김동주 교수(호서대 기독교학부)가 강의한다. 회비는 15만 원.

강의는 홈페이지에서 주차별 동영상 게시일로부터 2주 동안 시청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65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 P.P기도회’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 P.P(Power Prayer)기도회’가 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 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어머니 P.P기도회’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문의: 02-2182-9114

차세대 새친구 온라인 등록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 작성

차세대사역본부가 온라인으로 새친구 등록을 받고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를 작성하면 된다.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는 온라인(<https://forms.gle/khhe9wSjKyDCHvRp8>) 또는 QR 코드로 접속해서 작성하면 된다.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에는 소속 캠퍼스, 학생 정보, 대표 보호자 정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입력해야 한다. 새가족 정보는 차세대 전임교역자가 확인하고 담당교역자에게 전달한다. 담당 교역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나서 부서 편입 등을 한다. 차세대 교사는 nCare에 학생 정보를 등록하고, 새친구반 과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실시한 다음 소그룹 반 배정 등을 하면 된다. 문의: 02-3215-3521



“하나님을 제대로, 더 깊이 만나기를”

대청 비전집회 ‘New Hope’ 청년 2,656명 참석

온누리 대학청년 비전집회 ‘New Hope’가 막을 내렸다. 지난 2주 동안 일평균 청년 2,656명(유튜브 2,551명, 줌 105명)이 참여했다.

온누리 대학청년 비전집회 ‘New Hope’에서는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본부장), 정진호 장로(더웰스 인베스트먼트 회장), 김경훈 전무(구글), 이지선 교수(한동대학교), 정민영 선교사(전 위클리프 부총재), 구경선 작가(책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저자), 손창남 선교사(조이선교회 대표), 배우 신애라 집사 등 10명의 강사들이 메시지를 전했다.

이루리 자매(Pole2대학부)는 “비전집회에 참여하면서 불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고백했다.

김효준 자매(SNS청년부)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여전히 예배의 불을 붙이는 동역자에게 감사하다”며 “함께 모이지 못해도 계속 뜨거운 예배의 불길을 이어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27일 두란노해외선교회 화상전략포럼

‘현지인주도로 전환/이양 촉진’ 주제로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총 6차례 화상전략포럼을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준비한다. 그 첫 번째 화상전략포럼이 ‘현지인주도로 전환/이양 촉진’을 주제로 오는 1월 27일 막 오른다.

화상전략포럼에는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들과 두란노해외선교회 모든 임직원들이 참석한다. 화상전략포럼에서 이어지는 발제와 토론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와

앞으로 온누리교회 선교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두란노해외선교회 화상전략포럼은 올해 6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된다. ‘소그룹 직원훈련/가정중심업무’, ‘온라인/디지털업무 일상화’, ‘네트워크, 협력사역/플랫폼 구축’, ‘긴급구호/개발/회복사역’, ‘난민/이주민대상 새전략구상’ 등이 주제이다.

/ 김영선 기자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할인 이벤트

현혈증 및 인증 사진 제시하면 10% 할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괴혈(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 진행되는 1월 4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현혈증이나 현혈 인증 사진을 제시하면 구입한 제품에서 10%를 할인해준다(일부 품목 제외).

두란노서점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월요일 휴무). 서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02-796-2310)나 문자메시지(010-3229-2310), 온라인(www.duranno.com/store/onnuri)으로 주문할 수 있다.

e/onnuri)으로 주문할 수 있다.

또한 두란노서점에서는 온라인 북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도서 1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송해 준다. 두란노 온라인 북스토어는 홈페이지(www.duranno.com/store/onnuri)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90일의 기적’ 성경 일독 캠페인 추천 도서, <생명의 삶>, 하용조 목사 저서, 이재훈 목사 저서, 공동체 양육 필독서, 목회자 추천 도서 등을 판매하고 있다.

문의: 02-796-2310

NGO 더멋진세상 사역자 모집

해외사역자 및 홍보 담당

NGO 더멋진세상이 해외사역자와 홍보담당자를 모집한다. 해외사역자는 아프리카 6개국에서 지역개발, 농업, 성경 보급, 지부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이메일(mmy2jr@abetterworld.or.kr)로 접수하면 된다. NGO 더멋진세상 관계자는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선행 사마리마인이 되어 줄 청년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271-2246

■ 중보기도 요청



/ 강민호 지부장(NGO 더멋진세상 온두라스)

“온두라스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지난해 11월, 허리케인 ETA가 카테고리 4 규모(바람의 세기 250km/h 이상)로 남아메리카 온두라스 카리브해 연안과 북부 공업지대를 덮쳤다. 허리케인 ETA로 수많은 집과 공장들이 수해를 입었다. 산페드로술라 국제공항도 한동안 문을 열지 못할 만큼 큰 수해를 입었다. 그런데 7일 뒤 카테고리 4규모 허리케인 IOTA가 온두라스를 또다시 덮치며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공식적인 사망자가 91명이라고 발표했지만, 홍수가 지난 집마다 잔해를 치웠더니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홍수를 피해 지붕에서 3일 이상 구조를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다. 지붕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홍수에 휩쓸렸다. 내가 가르쳤던 한 학생은 새벽에 홍수를 피해 급하게 마을을 나오면서 여러 사람이 물에 휩쓸려 가는 것을 봤다고 한다.

엄청난 홍수로 두 개의 큰 강둑이 무너지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다. 2만 명이 근무하는 공장 지붕까지 물이 차올랐다. 10만 명이 거주하는 세 지역의 집 95%가 완전히 침수되었다. 전국적으로 다리 40개가 유실되고, 다리 45개가 크게 파손되고, 산사태가 나서 수

많은 도로가 끊겼다. 수많은 마을이 고립되었고, 차량이 다니지 않고 있다. 국제단체에서 온두라스의 극빈자를 60%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 홍수피해로 온두라스의 극빈자를 70%로 상향조정했다.

나와 지역 교회를 세우고, 돕고 있는 마을 중 하나인 세이비따마을은 홍수로 집 12채가 휩쓸렸다. 40가구가 사는 작은 산골 마을인데 순식간에 집이 없어진 주민들이 인근 학교에서 지내고 있다. 남은 집들도 나무와 돌로 쌓은 집들이 대부분이라 보강공사나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회도 벽에 금이 가고 지반이 약해져서 지반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긴급구호 일환으로 NGO 더멋진세상이 세이비따 마을에 집 12채를 건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주에 집 3채를 완성했다.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자재 운송이 어려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튼튼한 집을 짓고 있다. 온두라스는 코로나19도 심각해서 공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당장 길거리에 나앉은 주민들은 코로나19보다 집이 없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다. 온두라스와 세이비따마을 주민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

■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유도경 성도(분당A공동체)

용기와 소망이 생겼다

우리 시아버님은 연세가 80세다. 뇌경색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면 어쩌나’, ‘믿음 없으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시게 되나’ 같은 생각에 항상 마음이 편치 않다. 시아버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여러 번 망설였다. 남편도 나를 따라 겨우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라 시아버님 전도는 내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제대로 배워서 전도하자’는 마음으로 전도폭발훈련을 신청했다. 복음제시전문을 읽어보고, 암송하고, 관계전도를 위해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었다. 믿음 없던 내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족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다. 은혜를 암송할 때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인간을 암송할 때는 나의 죄인 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암송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암송할 때는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았다.

복음제시전문이라는 무기가 생기면서 용기를 얻어 시아버님께 확신질문을 드렸다. 하지만 아버님은 “나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버님

은 결신을 보류하셨지만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버님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소망이 생겼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암송하고, 외출도 자제하고, 쇼핑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 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딸이 가르시아 예화를 나보다 잘 암송해서 놀라기도 했다. 어떻게 암송했는지 물었더니 “엄마가 하도 많이 해서 저절로 암송하게 되었다”고 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나 싶은 생각에 부끄러우면서 기쁜 마음이 들어 딸아이와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난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조원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전도폭발훈련에서 받은 은혜를 순원들과 나누기도 했다. 순원 중에도 가족, 친구, 지인들을 전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 한 권찰님은 친정어머님이 절에 다니다가 최근 교회에 가겠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 권찰님께 관계전도를 알려드렸다. 배운 것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 더 많은 이들이 전도폭발훈련에 참가해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 온라인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정승욱 순장(양천공동체)

전도학교에서 배운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공동체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자 했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전도에 대한 열의가 없었다. 전도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건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장경문 장로님께 전화가 왔다. 온누리전도학교 수강을 권면하셨다. 애 셋을 키우다 보니 주일에는 아이들 예배까지 신경써야 했다. 그래서 주일에 진행되는 전도학교 수강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 강의로 개설되었다고 하셔서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존경하던 장로님의 권면이기도 하고, ‘한 번쯤 들어보면 좋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

전도학교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전도전문 암송은 막중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큰 부담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을 장로님의 명쾌한 강의와 조장님의 경험이 해결해주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내 전도방식을 돌아보게 됐다. “교회 나가보세요”라고 말하던 내 전도방식이 결코 전도대상자에게와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의를 듣고, 전도전문의 힘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전도전문을 외우기 위해 노력했다.

전도학교 과정을 하면서 큰아들 친구 전도를 도왔다. 아들에게 6년 된 친구가 있는데 아들이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 했다. 아들과 함께 기도하며 전도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전해주었다. 아들 친구는 영접기도를 따라 했고, 도쿄 온누리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했다.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지만,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 중이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몰랐던 과거와 다르게 전도학교에서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생이 그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

■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임진영 자매(허브대학부)

사랑 나누고, 말씀 실천하는 내가 선교사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부분에 제약이 생겼다. 특히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목사를 나누는 것도 어려웠다. 겨울이면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준비하고, 여름에는 기도로 아웃리치를 준비하던 시간이 까마득해 보였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려 와이미션을 수강했다.

나는 중보기도를 부탁받으면 언제나 기도 끝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를 마무리한다. 각자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런데 와이미션을 들으면서 이런 축복의 기저에 선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선교를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속한 이곳이 선교지’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다. 복음을 외치지 않아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체도 선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께

참 감사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께 존경심이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뤄가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또 마주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지체에게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혼자 간직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며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언제나 선교를 준비하며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다. 함께 복음 전하는 꿈을 꾸는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기도하면 응답하시며 매 순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아쉬움을 달래려 수강했던 와이미션이 내게 미션을 잔뜩 남겨주었다.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마주해야 하는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

장로칼럼

소망을 하늘에 두라



조형진 장로
(한강공동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시작과 마지막이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가운데 지난 세말과 세초, 국난 극복을 위한 세 이레 새벽기도회를 통해 이재훈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한국의 명실교자 18명의 메시지를 들었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 됨의 공감대를 이루게 하셨다. 연이어 올해 초부터 시작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으로 날마다 기적을 사모하며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나 험난한 이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생존이 위협받고, 교회는 질타의 대상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가 막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멀어져 버린 것만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함을 깨닫는다.

올해 온누리교회의 표어인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열매 맺는 것은 둘째치고 그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답이며 영원한 답이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예배와 기도회가 장기화되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 사람도 있지만, 믿음에서 떨어지는 성도들도 보인다.

각자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며 기도생활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각종 사역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돌봄이 필요하던 연약한 지체들을 북돋아 함께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번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공동체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벽기도회 이후 성경통독을 마치고 출석을 보고하고 각자의 소감 등을 나누며 신년에 다짐했던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생명의 삶> 본문으로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학 중이라도 순 단계 대화방에서 은혜받은 말씀을 나눌 수 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정치,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보잘것 없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맡기셨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사를 써가고 있다. 영상예배와 기도회에서도 성령의 사역과 임재가 분명히 있음을 믿는다. 강제적으로 직면하게 된 새로운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주여,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들로 교회가 연합하여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주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각성하여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하셔서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19가 더이상 확산 되지 않게 하시고, 멈춰버린 일상이 백신과 치료제로 정상화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만민 중에 보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칼럼

“Okay with Jesus! Yes Jesus!”



이영주 권사
(부천 온누리교회)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우리 가정에는 큰 슬픔이 있었다.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일이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큰 슬픔이 찾아왔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로 기도해주신 믿음의 지체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10년 동안 병상에 계신 아버님이다.

“대원 애미 둘째야, 네가 수고가 많구나. 난 늘 괜찮다.”

핸드폰 스피커로 들려오는 아버님의 목소리다.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한결같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우리 아버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다. 별로 잘해드리지도 못하는 데 아홉 가지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조금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신다. 아버님을 볼 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다. 아버님은 척수염 수술 이후 중추신경계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 하반신 마비 증상 등으로 인해 10년 동안 병상에 계신다. 처음에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라는 생각으로 힘들었고 눈물이 났다. 그런데 그 막막한 광야교실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기도 끝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로 결정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괜찮

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율합니다.”

그러자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정에 잔잔히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요즘에는 높아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아버님께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있다. 아버님은 누워서 병상에 계시면서도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생각하며 기도하신다. 가정에 특별한 기도제목이 생겨서 아버님께 기도부탁을 드리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주시는 것을 느낀다. 아프신 아버님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여겨진다.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기에 병으로 인해 어려운 지체들이나 그 가족들이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된다.

어머니의 부재로 허전함을 느낄 때면 어머니께 잘해드리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난다. 어머니가 그리운 날에는 가만히 앉아 눈물만 흘릴 때가 있다. 하지만 눈물과 아픔 없는 하늘 나라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치시면서 찬양하실 모습을 떠올리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

우리 부부에게는 또 하나 남겨진 숙제가 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친정부모님 전도이다. 우리 부부는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잘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듣거나 판단하실 때가 있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모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부모님의 이름을 기록해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날마다 소망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호를 외쳐본다.

“Okay with Jesus! Yes Jesus!”

신앙에세이



김성욱 목사
(강동 차세대)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간다. 성장통과 같은 이 시간이 개인에게는 불편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는 그리스

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는 성찰하는 부모이다. 자녀의 눈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된다. 어릴 때는 부모의 통제 속에서 순종을 배우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자녀는 청소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찾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는 부모의 권위적인 말과 자녀가 이해한 진리 속에서 저울질을 시작한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분리개별화의 시기’라고 부른다.

분리개별화 시기에 자녀는 자기가 본받고 싶은 모델을 찾기 시작한다. 자신이 그동안 배워온 진리와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청소년이 된 자녀에게 1순위 모델은 당연히 부모이다. 부모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의 자녀가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향유하는 문화 또한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의 말 못 하는 관계적 고민거리와 부모의 어린 시절 고민거리는 그리 차이 나지 않는다. 똑같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원만한 친구와의 관계를 원한다. 때로는 재미거리리를 찾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순간 청소년이 되어가는 자녀를 어린아이 때처럼 통제관의 입장으로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한다. 이 시기가 부모에게 성찰의 좋은 기회가 된다. 어릴 적을 회상하고 그 시절 부모와 지금의 자녀가 만나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자녀와 훨씬 수월하게 연결될 것이다. 왜 우리는 다른 집 자녀에게는 관대하고 배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자녀에게는 화가 나고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는 뿌리 깊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자녀 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과 천사가 밤새 씨름했다.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은 애초부터 씨름의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힘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이

천사가 야곱과 같은 힘의 수위로 씨름을 했다는 사실이다. 마치 헤비급 선수가 미들급 선수와 같은 힘으로 스파링을 하듯이 밤이 새도록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가 팔씨름을 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부모가 자녀를 이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모가 자녀와 비슷하게 싸우다가 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팽팽하게 맞서다가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모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지시와 강요가 아닌 같은 입장에서 함께 하셨다.

자녀와 밀접한 생활이 불가피하게 된 오늘의 환경과 치열하기까지 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다. 우리는 순종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선택을 허락하시고 함께 씨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한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자녀들이 바라고 되고 싶은 모델로서의 부모의 모습일 것이다.



주일강단

〈5면에 이어〉

죽음의 냄새인가 생명의 향기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냄새입니다. 승리의 개선 행렬이 지나는 곳마다 향이 태워져서 이 냄새를 맡는 모든 사람들이 그 승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그리스도의 냄새로 비유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게 하는 역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15절).

누가 어느 집에 어느 정도 사는가에 따라서 냄새가 땁니다. 이것을 영적인 생활에 적용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진정 살아 계시고, 계속 살아계시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기억하면서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 제도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 제도를 설명한 레위기 5장까지 내용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제사이면서 동시에 의무적이자 강제적으로 드러지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신의 제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향기란 강제와 의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모셔 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기쁘게 자원함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빌립보에서 사용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에 대한 확인과 감사의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재정 원칙은 자비량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휘방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모든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예외적으로 헌금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교회입니다. 빌립보교회는 먼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문제가 무엇인지, 도울 일이 없는지, 기도제목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추적하며 동행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빌립보교회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다면서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 안에 교제함을 인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인 지원도 의미합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빌 4:18).

레위기에 썼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드림이 향기로운 제물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로부터 받았던 비난, 오해, 대적 가운데서 자신의 소명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향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16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일이기 때문

에 승리의 행진에서 피어나는 냄새를 맡고 그 행렬에 동참하는 이들은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승리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도 그 생명의 행진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곧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을 죽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도 생명의 행진, 승리의 대열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큰 고통 속에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키는 승리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포로된 종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기쁘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왜 좌절합니까? 자신의 소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행진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포로된 종으로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이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가 곤란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을 질투하고 공격하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도처에서 교회의 흠을 잡고, 교회를 부정평가하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울함과 답답함,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는 존재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향기가 난다고 평가받는 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소문과 부당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일과 동일하게 싸워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포로된 종으로써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자 소망입니다. 약한 자로서 경험하는 능력의 승리입니다. 때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경험하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사 자녀들의 간증 그리고 고백

“예수님, 왜 나같이 어린아이를 핍박당하게 놔두세요?”

나는 영국 웨일리 뉴포트에 살고 있고 링란드 스쿨에 다닙니다. 네 살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코비제이가 여러 번 나를 때렸습니다. 여자아이가 나를 밀어서 얼굴에 큰 상처와 피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영어를 못하고 피부색이 달라서였는지 아이들은 나를 싫어했고, 그래서 나는 학교 가기가 싫었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링란드에 우리 가족이 처음 이사 왔을 때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집에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전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나는 형과 누나들에게 아빠는 항상 친절하게 전도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태권도 시범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은 돌아서면 우리 집에 장난치듯 웃으며 돌을 던졌고 아빠를 공격했습니다. 아빠가 앉아

있던 거실 창문에 갑자기 돌이 떨어져서 하마터면 아빠가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웠고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11개월 동안 매일 집을 찾아 헤매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다섯 살이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거의 매일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집을 찾아야 했던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선교팀을 받았더니 옆집에서 신고해서 주인아저씨가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Heart Fire Church는 주변의 신고 때문에 뉴포트 시티센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장소가 생겨 기뻐했는데 어느 주일날 가보니 교회 유리창이 모두 박살이 나 있었고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슬펐습니다. 왜 우리가 나쁘지 않게 하고, 많은 영국 사람들과 노숙자들도 돕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는지 슬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덟 번

반복되었고 주인아저씨는 더는 창문을 바꾸어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형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녁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아빠에게 “목사님”하고 부르며 주먹으로 때리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와 우리 가족은 매주 거리에 나가 전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코리안’으로 우리를 알고 있고, 놀리고 장난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아빠와 우리를 핍박하는 이 도시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핍박이 많아 이곳에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지 힘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나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고 똑같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쓰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을 때가 많지 않나?’

그래서 먼저 나의 악함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의 악함도 변화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 형, 누나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때로 힘들지만 예수님,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한 것에 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김혜민(11세, 영국)

* 이 간증은 선교사 자녀 간증집 <마주보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더 많은 선교사 자녀들과 선교사들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CGNTV

→ 하루 20분
 생명의 삶 ×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 채널 신규 오픈 이벤트

매일 올라오는 말씀 읽고, 선물도 받으세요!



/ 참여 방법



‘생명의 삶’ +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1

각 채널에 업로드 되어있는 이벤트 영상에
 따뜻한 응원 메시지와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미 구독하셨다면?
 댓글만 달면
 응모 완료!

2

예시) 생명의 삶 유튜브 채널 화이팅! cgntv@cgntv.net

- 이벤트 기간 : 1월 18일(월) ~ 1월 31일(주일) *2주간
- 당첨자 발표 : 2월 8일(월) 각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공지

/ 상품



2명

갤럭시 버즈 라이브

- LAMY 고급 볼펜 (10명)
- 경희루 K.LUU 화장품 세트 (10명)
- 휴대용 충전기 (10명)
- 투썸플레이스 1만원 상품권 (10명)
- 울랄라 백팩 (10명)

유튜브에서 ‘생명의 삶’,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검색, 구독!